

나주 혁신도시 4년간 지역채용 25%...실제 채용은 반토막

■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

(단위:명·%)

이전기관	2018~2021년 누적				
	전체 채용	대상 인원	지역 인재	전체 비율	의무화 비율
	10891	5521	1388	12.7	25.1
한국콘텐츠진흥원	71	39	22	31	56.4
한국인터넷진흥원	91	91	36	39.6	39.6
한국농어촌공사	1254	143	51	4.1	35.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2	52	17	20.7	3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6	31	9	19.6	29
한국전력거래소	205	172	48.5	23.7	28.2
한전KDN	599	444.5	125	20.9	28.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	110	30	14.9	27.3
한전KPS(주)	1984	1065	275	13.9	25.8
한국전력공사	6146	3373	774	12.6	2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6	0	0	0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3	0	0	0	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2	0	0	0	0

(자료:국토교통부)

13곳, 신규 1만891명 대비 비중 12.7% '연구직' '경력직' '지사 채용' 예외규정 탓
올 10곳 1434명 계획 중 지역인재 282명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대상 932명 가운데 30.8%에 달하는 287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뽑았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크게 웃돌았지만 전체 정원(2078명)에 비해서는 13.8%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일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은 지난해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932명 가운데 287명을 광주·전남 출신 인재로 뽑으면서 30.8%의 비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13개 시도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은 세종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44.5%, 충북 39.7%, 대구 37.6%, 경북 37.0%, 전북 36.7%, 울산 35.2%, 충남 35.0%, 부산 32.3%, 대전 32.1%, 광주·전남 30.8%, 경남 30.6%, 제주 2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기관별 채용실적은 이른바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공개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지역 채용비율은 해마다 3%포인트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적 공개 첫해인 2018년에는 대상인원 1698명 중 359명을 채용하며 21.1%를 달성했다. 이듬해는 24.6%(1610.5명 중 395.5명), 2020년 27.0%(1280명 중 346명), 2021년 30.8% 등으로 높아졌다.

최근 4년 동안(2018~2021년)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뽑은 지역인재는 1387.5명으로, 이는 대상인원 5520.5명 가운데 25.1%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채용 비율은 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은 4년 동안 총 1만891명을 채용했는데, 지역인재는 이 가운데 12.7%(1387.5명) 비중을 차지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은 매년 주어진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지켜야 하지만,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시험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거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을 뽑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할 때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 중 6곳은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실제 채용비율이 차이가 10%포인트를 넘겼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한국농어촌공사 누적 채용 실적은 35.7%(143명 중 51명)이었지만, 전체 신규 채용 규모(1254명)에 대한 비율은 4.1%에 그쳐 격차가 31.6%포인트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채용대상 3373명 가운데 774명을 채용하며 22.9%의 비율을 나타냈지만, 신규 채용한 6146명에 대한 비율은 12.6%에 그쳤다.

나주 이전기관들의 4년 간 누적 채용비율은 한국콘텐츠진흥원 56.4%(전체 대상 비율 31.0%), 한국인터넷진흥원 36.6%(" 동일), 한국농어촌공사 35.7%(" 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2.7%(" 2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9.0%(" 19.6%), 전력거래소 28.2%(" 23.7%), 한전KDN 28.1%(" 2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3%(" 14.9%), 한전 KPS 25.8%(" 13.9%), 한국전력 22.9%(" 1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106명을 신규 채용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0명' 이었고, 73명을 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32명 채용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0'으로 실적 보고했다.

한편 올해 나주 혁신도시 10개 기관은 1434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147명)을 포함한 8개 기관은 282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채용기로 했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은 30%로 올라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 60세 이상 취업자 44만3000명 역대 최다

고령화·공공일자리 사업 영향

2030 등 젊은층·중년층은 줄어

고령화와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60세 이상 취업자가 44만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다른 청년·중년 취업자가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노년 취업자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지만 희망하는 일자리나 임금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지역 취업자는 광주 12만6000명·전남 31만7000명 등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광주 4.2%(5000명)·전남 7.3%(2만2000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광주·전남 60세 이상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나온 1989년(광주 1만9000명·전남 17만5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는 광주 101.9%(6만4000명)·전남 33.5%(8만명)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광주·전남 취업자는 20대에서 9000명 줄고, 30대 1만1000명, 40대 4000명, 15~19세 4000명 등이 줄었다. 전년보다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2만7000명)과 50대(8000명)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60세 이상 인구는 광주 59.5%(19만7801명→31만5550명), 전남 30.3%(46만7559명→60만9063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광주 39.4%·전남 56.1%로, 10년 전보다 각각 7.9%포인트, 4.2%포인트

상승했다. 공공일자리 사업 덕분에 '일하는 노인'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임금은 딱딱한 살림을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55~79세가 장래근로희망자가 바라는 임금수준은 지난해 5월 기준 월 평균 150만~300만원 미만인 49.3%로 가장 많았다. 근로 희망 사유를 보면 58.7%가 '생활비 보충'을 꼽았다.

150만~200만원 미만인 22.0%로 뒤를 이었고, 100만~150만원 미만 18.4%로 뒤를 이었고, 200만~250만원 미만 17.8%, 50만~100만원 미만 13.7%, 300만원 이상 13.2%, 250만~300만원 미만 9.5%, 50만원 미만 5.4% 등 순이었다.

월 평균 150만~300만원 미만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10년 전 23.3%에서 지난해 49.3%로, 2배 넘게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설 명절 화폐 공급액 6% 증가

설 연휴가 전년보다 하루 늘어나면서 광주·전남 지역 화폐 공급액이 6% 가량 증가했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명절 전 10영업일(1월17~28일) 동안 광주·전남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은 5766억원으로, 전년(5443억원)보다 5.9%(32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지난해보다 설 연휴일수가 하루 증가(4일→5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 전 10영업일 동안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9년 6552억원 이후 2020년 6303억원, 2021년 544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반등했다.

설 발행액은 총 614억원으로, 5만원권 3639억원·만원권은 2374억원으로 나뉘었다. 5만원권 발행액은 전년보다 140억원 줄고, 만원권은 412억원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지은행 사업 1조4100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1조4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 가량 늘었으며, 이는 농어촌공사의 전체 예산(5조4675억원)의 25.8%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은행 사업은 은퇴농, 자경(自耕) 곤란자, 이농민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확을 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중합 관리제도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김형순(맨 왼쪽) 대표 등 임직원들이 '사고 제로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해양에너지, 사고 제로·ESG경영 결의대회

중대재해법 맞춰 10개 항목 다짐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경영방침 10개 항목을 지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와 모든 임직원은 지난 달 27일 광주시 광산구 해남동 본사 대강당에서 '사고 제로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노사 대표는 함께 '선도적 안전관리를 통한 사

고 제로'를 경영목표로 내걸었다.

이날 함께 다짐한 ESG경영 방침 10개 항목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영진 솔선수범' '작업 전 위험도평가 실시' '아차사고 사례 적극 발굴' '협업업체와 상생협력 기반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직원 대표는 결의문을 선포하고 실천 결의 서약서를 노사 대표에 전달했다.

김형순 대표는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안전보건경영 구현에 앞장서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